

#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 농촌 노동력 대체 역할 톡톡

방제·파종·작황 예찰 등 사업  
공용장비 20종·실증 시설 갖춰  
지역 드론 기업 육성 다양한 지원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 활용 성과



지난 9월 29일 세한대 영암캠퍼스 축구장에서 열린 '전남도 농업용 드론 실증포럼'에서 참가자들이 드론 비행 시연에 앞서 기체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설립된 전남드론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인구 감소, 고령화 속에 드론을 통해 전남 농업을 도약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센터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협회, 한국전력공사 등이 주축이 된 '산업용 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건립됐다.

관제실, 성과전시실, 운영사무실 등 드론 기업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드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영상처리 시스템 등 공용장비 20종을 구축·지원하는 등 공동 작업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장비는 모두 대여가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전남지역 드론 기업의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단계별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총 38개 과제를 지원 중이며, 과제 수행 기업 가운데 5곳은 올해 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데이터 활용 실증'을 통한 지능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안군 해제면을 대상으로 드론 영상 데이터에 기반해 '지능형 작물 재배 면적 모니터링 서비스 실증'의

경우 전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 단위 면적조사 실증에서 시작해 지원사업을 통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검증받아 전국 13개 시·군 단위 농식품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데이터 수집을 통한 빅데

이터화 및 인공지능 분석 결합을 통해 향후 수확량 예측 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2019년부터 8개 업체가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아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사업화에 성공하는 등 결실을 거뒀다. 방제, 파종, 작황 예찰, 병해충 감시 등 농업 전 분야에서 드론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나고 동시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 비료 살포, 방역, 벼 직파 재배 등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현장실증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공동으로 올해부터 5대 채소 중 마늘과 양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재배면적, 재배정보, 재배 의향 등을 통합해 빅데이터 구축, 생산량 예측과 수급 조절을 시도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고령화, 농업 생산인구감소 등 지역 현실은 물론 식량주권 수호, 농업혁신이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밀 데이터의 필요성과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농정의 효율화와 전남 핵심 산업인 빅데이터 기술 융합 추진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11월 전통주 담양 '천년담주' 선정



전남도는 대술 맑은 담양의 100% 친환경쌀과 천연발효를 넣어 만든 프리미엄 약주인 담양 농업회사법인 (주)죽향도가 '천년담주'를 11월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

천년담주는 장기 저온 발효 숙성공법으로 빚은 약·청주다. 인공감미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생 대나무 분말과 갈대 뿌리를 사용해 깔끔함과 감칠 맛이 일품이다. 술 색깔이 맑고 투명한 황색 빛깔을 띠고 있어 매력적이다. 단맛과 신맛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술을 마시고 난 후 입안에서 느껴지는 열은 쓴맛이 음식과도 조화를 이룬다. 특히 한약재를 넣고 삶은 수육과 잘 어울린다. 죽향도가는 전남도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양조장으로,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다. 2011년 술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우리술 품평회에서 2020년 탁주 부문 대상, 2021년 증류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강하준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죽향도가는 담양의 친환경쌀로 술을 빚어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 우수 업체"라며 "지역 농산물로 생산한 전통주의 유통 기반 구축과 지속적 홍보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한국경영인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채용 인증이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제3자가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0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직무능력 심층검증을 위한 구조화된 3단계 블라인드 면접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2019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정채용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인증심사 평가항목 59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최초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김철신 사장은 "투명한 인재 채용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 출범

### 경매 최고가 600만원 육박

### 우량 종자 생산 기반 구축

전남도가 최근 합평축협과 장흥축협 가축경매 시장에서 축산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으뜸한우송아지' 브랜드를 출범시켰다.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 전남 한우를 차별화하고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그동안 13개 시·군, 참여농가 5184호에 총 73억 원을 지원했으며, 총 3만1000마리를 으뜸한우로 선발해 도내 축산농가 공급, 한우 사육기반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전남 으뜸한우송아지'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고등등록우, 유전능력 상위 30% 이상, 후대도축 성적이 우수한 개체 중 선

형심사 79점 이상인 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친자 확인, 질병 유무 등 종합 심사로 선발한 우수 송아지에 부여하는 브랜드다.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인공수정과 사양관리 컨설팅 등 혜택이 있으며, 으뜸한우송아지로 선발된 송아지는 브랜드 규격을 부착해 지역축협으로부터 개체관리를 받는다.

이번 가축경매시장에 출품한 으뜸한우송아지는 합평 31마리, 장흥 12마리 등 총 43마리다. 경매 결과 당일 가축시장에서 거래한 일반 한우송아지와 평균 가격을 비교해 합평의 경우 암송아지가 67만원 높은 435만원, 수송아지가 63만원 높은 500만원에 거래됐다. 장흥의 경우 암송아지가 129만원 높은 445만원, 수송아지가 58만원 높은 477만원에 판매됐다. 최고 경매가는 합평의 암송아지가 543만원, 수송아지가 598만원, 장흥에선 암송아지가 558만원, 수송아지가 513만원을 기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고흥군, 전남도 귀농산어촌 정책평가 대상

전남도의 2021년 귀농산어촌 정책 종합평가 결과 고흥군이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금은 30일 '2021년 귀농·귀촌 어울림대회'에서 한다.

귀농산어촌 정책 종합평가는 1년의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우수 시·군을 격려하기 위해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상 고흥군에 이어 최우수상은 보성군, 우수상은 구례군,

화순군, 해남군이 선정됐다. 시상금은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이다.

평가 항목은 귀농산어촌 사업 추진, 귀농산어촌 인 유치 실적, 시군 업무 추진 의지, 홍보 및 교육·행사 실적 등 8개 항목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각 시군의 한 해 업무추진 성과를 집계해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위드 코로나 시대 행복 찾기

### 전남사회단체연합회 세미나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회장 황금영)가 지난 26일 영암 현대리조트호텔에서 1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행복 찾기'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합회의 지혜를 모으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 회원과 도민은 '자랑스러운 전남 만들기' 운동을 통해 사회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이루고, 나아가 주민 서로가 주인된 생각을 하고 정감을 나누는 '이해와 나눔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황금영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장은 "도정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회단체 대표와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이 일상화돼 도민 생활에 활기가 넘치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